

(2026년 8월13일 목요일 5면)



송파구의회는 지난 3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'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'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송파구의회 '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' 정책 간담회 개최

송파구의회 상임위 간 경계 넘어 의원·전문가 머리 맞대

송파구의회(위정희 의원 주최)는 지난 3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'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'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

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위정희 의원,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, 박순례, 김안나, 이희승, 채승우, 이승

희 의원 등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고태훈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학교희망교육 이사장,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등 방과 후

및 돌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린 논의를 펼쳤다.

이날 발제를 맡은 고태훈 이사장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놀음학교 및 맞춤형 돌봄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교직원·실무사의 행정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. 고 이사장은 타 자치구 사례를 언급하며 "방과 후 학교의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 및 지원해 주는 도봉구의 '방과후 지원센터' 모델이나, 구청이 주도하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구의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행 체계와 마을 자원 연계가 필수적이다"라고 조언했다.

참석자들은 방과 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참여 만족도 저해 요인으로 '위탁 업체의 단순 플랫폼화' 및 '강사 관리의 한계'를 꼽았다. 이어 교육청 중심의 강사 인력풀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필요성, 학생 안전 이동 동선 관리를 위한 앱 자동화 시스템 도입,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통합적 돌봄망 구축 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.